

여야 대표회담 불발...세월호법·국회정상화 '칩칩산중'

文 “이달 안 세월호 문제 매듭” 與 “30일 본회의 참여가 먼저” 파행정국 장기화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가 세월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월1일부터는 정국이 정상화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여야 대표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그는 “원내대표 간 협의가 완전 교착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출구로도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합의를 전제로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실패해도 국회에 등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협상타결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꼭 된다고 믿는 낙관론 편에 서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의 여야 대표 회담 제의에 새누리당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당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TV를 통해 접하고 호응하기 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창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표 협상을 제안하기 전에 의총을 먼저 열어 세월호법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당에 협상을 제안하는 게 여당과 국민에 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의정실을 방문. 정의화 의장과 대화하고 나서 의정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도리”라며 “문 위원장이 협상을 하면 새정치연합이 전권을 부여해 협상안 수용 여부를 먼저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30일 본회의에 야당이 조건 없이 들어와 안전 처리에 협조해야만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91건과 국감 실시 관련 안전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 현재까지는 확고하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가 회담에 적극적인 합의를 이뤄 본회의에서 안전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30일 본회의에는 안전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렸다.

만약 새누리당이 계류 안전을 단독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쪽 국회’를 본격적으로 강행한다면,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정국 파행은 불가피하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남

은 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파행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난 26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예정됐던 90개의 안전 처리 없이 산회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 후 9분 만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법률안을 다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의사일정 재조정 방침을 알리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헌론 ‘술술’

여야 148명 참여 개헌 모임 내달 1일 조찬 모임 공론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다음 달 1일 조찬 모임을 통해 개헌 공론화에 나선다. 지난 2월 전체모임 이후 8개월여만의 활동 재개이다.

2011년 발족한 이 모임은 올초 한때 재적 과반인 150명을 넘어서면서 헌법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세월호정국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대의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모임은 새누리당 이근원,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18대 국회 당시 개헌을 역점 추진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28일 “다음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대우 한림국제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하반기 모임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 :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다. 이어 의원들은 서명 작업이 완료된 ‘국회 개혁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의 제출 시점을 비롯해 조문화소위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올 연말까지 재적 과반의 회원 수를 회복해 개헌 조문화소위에서 마련된 단일 개헌안을 모임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과 정기국회 중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투 트랙’으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모임 관계자는 전했다.

모임은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직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날 강연은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 :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다. 이어 의원들은 서명 작업이 완료된 ‘국회 개혁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의 제출 시점을 비롯해 조문화소위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올 연말까지 재적 과반의 회원 수를 회복해 개헌 조문화소위에서 마련된 단일 개헌안을 모임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과 정기국회 중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투 트랙’으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모임 관계자는 전했다.

모임은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직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與,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 커녕 반말폭언을 부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경찰 소환통보일시 지경에도 불시에 출석해 사법체계를 농락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조선군단’ 野 혁신위, 고강도 개혁 이끌까

위원 12명중 7명이 조선의원...김승남·신정훈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선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이번 주부터 혁신 실천에 나선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실패와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으로 당이 베팅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조선들의 패기를 동력삼아 강도 높은 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 등 28일 혁신실천위에 참여할 1차 위원 내정자들을 발표했다. 원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된 혁신실천위원회는 김기식·김승남·김윤덕·신정훈·전정희·진선미·홍종학 의원 등 7명의 조선 의원이 전면 배치됐다.

조정식 사무총장, 우윤근 정책위의장, 민병두 민

주정책연구원장 등 3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됐으며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이태규 당무혁신실장은 정무직 위원으로 인선됐다.

원혜영 위원장은 “개혁적인 의지가 있고 정치의 기존 질서에 덜 길들여진 사람들로 혁신 의지를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선 중심의 혁신실천위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고 혁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혁신실천위는 비대위 의결을 거쳐 위원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주초에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승남 의원 / 신정훈 의원

안철수 “때가 아니다”

野 비대위 참여 고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6일 ‘비대위 참여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시선과 혹독한 질책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비대위에 참여해 다시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비대위 불참을 전명함에 따라 7·30 재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한 김한길 의원이 비대위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백운일주 2014년 11월 (예정)
중도금 무이자
공급면적 (㎡) 78/75
선착순 마감임박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1. 실업주금 2천만원(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3. 용봉C 양방향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까지 상승 요인)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마련(2,000~4,000만원대)
5. 일곡정슬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위치: 용봉(순천방향) 용봉현대아파트 앞

문의: 062) 385-3080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사항 안 두경 / 천우 하연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간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경품 사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하신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용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 서동 본점 671-5000 / 양림 지점 652-9203 / 황산 지점 364-7557